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분이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그러자 그분은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다.

“복되어라, 영으로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복되어라, 슬퍼하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상속받으리니.

복되어라, 의로움에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은 배부르게 되리니.

복되어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

그들은 자비를 받으리니.

복되어라,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을 뵈게 되리니.

복되어라, 평화를 이룩하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어지리니.

복되어라,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니.

그대들은 복되도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그대들을 모욕하고 박해하며 그대들을

반대하여 [거짓으로]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그대들은 기뻐하고 신명내시오.

그대들이 받을 상이 하늘에는 많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대들에 앞서 간 예언자들도

그렇게 박해했습니다.”

(마태 5,1-12)

삶의 중심은 어디에?

삶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고유한 특성 중의 하나일런지 모른다. 출퇴근 길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속에서 모를 듯이 문득 무언가 자신의 내면을 사로잡는 알 수 없는 것을 감지하기도 하고, 지하철 속에 앉아 눈앞에서 빠르게 지나가는 여러 영상들 안에서 무언가 나의 내면을 사로잡는 알 수 없는 그 무엇을 감지하기도 한다. 때로는 한가하게 노니는 어항 속의 작은 붕어를 바라보면서, 혹은 작은 풀 한 포기나 꽃을 바라보면서 자기도 알 수 없는 그 무엇에 사로잡혀 존재나 생명에 대하여 다듬어지지 않은 질문을 던지기도 한다.

지나온 삶의 여정 속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있다. 그 안에는 어려움과 두려움이 담긴 좌절도 있고, 새로운 힘과 결심이 담긴 희망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내시어 새로운 희망으로 이끄시는 분이시다. 삶 속에서 나를 짓누르는 어려움들의 본질을 보게 해주시고, 그 안에서 희망을 되살려 어려움을 대면하도록 힘을 북돋아 주시고, 희망의 원천이 되어 주셔서 내 안에 새로운 결심을 이끌어내신다. 사실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그 행복과 불행이 갈린다. 과연 어디에, 무엇에,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나의 중심 혹은 안심을 두어야 하나? 마치 어린아이가 따스하게 보살피는 어머니 앞에서 놀 때 거기에는 자기도 모르는 엄청난 안심하는 느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 존재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우리의 모든 안심을 두어야 한다.



성서에서는 하느님을 '반석' 혹은 '바위' 라는 이미지와 연결해서 묘사하기도 한다. "나의 힘이신 야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의 하느님, 내가 숨을 바위" (시편 18,1-2). 그렇다.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 목표이시며 그분만이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이셔야 한다.

어려움의 본질은 바로 이것이다. 삶의 의미를 자기 중심에 두면 점차적으로 외톨이가 되어 가며, 결국은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불행한 삶을 영위하게 된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삶은 이웃 동료와 함께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기에, 결국 교회와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 주는 삶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안심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안심

예수께서는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거쳐서 들어오면 안전할 뿐더러 마음대로 드나들며 좋은 풀을 먹을 수 있다”(공동번역 요한 10.7.9)라고 말씀하신다. 당신 안에 진정한 안심이 있고, 진정한 자유가 있으며, 만족과 풍성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신다. 그분은 바로 우리 생명의 근원이신 분이시기에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요한 10.10)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다.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표상에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이 부각되어 있다. 하나는 서로서로의 친밀한 관계의 표현이고, 또 하나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는 헌신의 표현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압니다”(요한 10.14)라는 말씀에 담겨 있는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예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내적 친밀감을 표상하면서 예수님과 우리가 나누는 관계, 즉 그분을 친밀하게 알고 섬기는 사랑의 관계를 담고 있다.

예수님께서 성부와 나누시는 이 친밀한 사랑의 관계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습니다”(요한 10.15)라는 말씀에 담겨 있듯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몰아적 사랑을 통해 표현된다. 자기를 죽여 남을 살리는 지극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당신의 모든 희망과 안심을 두시기에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의 신비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내 목숨을 내놓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그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도 내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다. 나는 목숨을 내놓을 권한도 있고 다시 얻을 권한도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나는 나의 아버지에게서 받았습니다”(요한 10.18).

내 나뭇의 생명을 고수하려는 행위는 자기 스스로 안심하고자 하는 모습이다. 나를 온전히 아시고 받아 주시고 힘을 주시는 하느님의 친밀한 사랑은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 고수하려고 쌓아 놓은 나의 안심을 부수어 버리도록 촉구한다. 그리고 내 나뭇의 안심을 포기했을 때에야 비로소 내게 생명을 주는 삶의 의미가 담긴 '하느님의 뜻'이 삶의 지평에 떠오르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으로 향하도록, 즉 아버지의 생명에 동참하도록 이끄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하느님 안에서 기르고 보살펴 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착한 목자' 이시다.

하느님께 성실하도록 초대하심

하느님만이 우리 삶의 궁극적 목적이시며 우리의 안심이 되어 주시는 '바위' 이심을 우리에게 알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를 기억해 보며 기도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그분의 생애는 바로 당신이 삶 전부를 다 바쳐 성실하게 아버지 하느님을 섬기셨듯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 성실하도록 끊임없이 초대하고 있다.

복음은 바로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사도로부터 전승된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담고 있다. 그리스도교 정신의 원천적인 증언으로서 그리스도 그분을 배우게 해 주는 공적인 근원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껏 예수님을 보다 잘 배우고 이해하기 위해서 그 주위 배경들을 준비해 온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속에서 구하는 은혜는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과 가치관을 우리의 마음 안에 간직하고 그분과 더불어 세상을 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을 나누는 은혜인 것이다(필립 2,5; 3,8-9 참고).

새로운 가르침과 새로운 관계

마태오복음은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계명을 내리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재현한다: “예수께서는 군중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그분이 앉으시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왔다. 그러자 그분은 입을 여시고 그들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셨다”(5,1-2).

비록 복음사가 마태오에 의해 우리에게 전해지지만 산상수훈의 근본가르침은 예수님께 그 근거를 둔다. 거기에 담긴 근본사상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하느님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인간이 사랑이라는 근본적 태도를 바탕으로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특별히 진복팔단의 가르침에서는 가난하고

소의당한 사람들과 그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예언적 정신을 지닌 이들이 누리는 행복을 선언하고 있다. 일편단심으로 하느님께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애써 수고하며 실천하는 이들이 누리는 행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말을 혁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하러 오신(마태 5.17) 예수께서는 “…… 하고 옛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시며 새로운 가르침을 내려 주신다. 새로운 가르침이란 율법을 준수하고 지킴으로써 얻게 되는 하느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그분의 자녀로서 누리게 되는 하느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의미한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해) 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시오. 이것이 율법과 예언자들(의 정신)입니다”(마태 7.12) 하시며 모든 율법조항들을 상대화하신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떠받치고 있는 고귀한 계시는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대한 사랑이다. 예수께서 당신의 입에 담아 우리에게 직접 전해 주신 ‘주님의 기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거기에는 하느님 아버지께 대한 신뢰와 끊임없이 우리를 용서와 화해로 이끄는 정신이 담겨 있다. 기도가 하기 싫어지고 메말라지는 것은 바로 하느님께 대한 신뢰의 부족이 그 근본 원인이고, 용서와 화해는 하느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 조건이며 전제이기도 한 것이다. 한 가지 상기할 만한 것은 성서에서 기도에 관한 가르침이 있는 대목 전·후

에는 반드시 용서와 화해에 대한 요청과 가르침이 있다는 사실이다. 기도하며 바라보는 이가 바로 용서하시고 화해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느님이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들 자신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사랑하는 자로 변화시켜 준다.

사랑하는 힘을 구하는 청원 기도

예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청해야 한다고 가르치신다. “청하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시오,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시오, 여러분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어 주실 것입니다”(마태 7,7-8). 때때로 우리는 기도에 관한 이러저러한 서적을 읽으며 그릇된 인상을 지니게 된다. 마치 주님께 현실적인 무엇을 청하고 부탁하는 기도는 비교적 유치한 기도에 속하고, 뉘를 잃고 그분의 신비에 깊이 잠기는 관상과 같은 기도는 고급스러운 기도에 속한다는 인상 말이다. 이러한 그릇된 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께 마땅히 구해야 할 것도 구하지 못하는 허황된 영적 교만의 망상에 사로잡힌 바보로 만든다. 기도의 신비에는 원래 고급스러운 것도 없고, 저급스럽거나 유치한 것도 없다. 오히려 성서는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라고 가르친다(로마 12,12; 에페 6,18; 골로 4,2; 1테살 5,17).

기도는 나 자신이 하느님께 의존된 존재임을 끊임없이 재

확인시켜 주며, 이러한 재인식은 당신께 구하는 것을 반드시
 하느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신뢰를 우리 마음 속 깊이 심어 준
 다. 그리고 이 신뢰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한 형
 제이며 자매임을 상기시켜 준다. 나에겐 내 형제와 자매를
 판단하거나 단죄할 권리가 없다. 오히려 이웃을 사랑하고,
 없는 이에게 자선을 베풀며, 하느님의 사랑이 부족한 자신을
 채우시도록 기도해야 하며, 내 안에 담겨진 하느님의 사랑이
 나의 이기적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바르게 실천되
 고 표현될 수 있도록 극기하고 절제해야 한다. 하느님의 뜻
 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을 나의 구체적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이
 다.

묵상 성구

마태 5-7

청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시
 오, 얻을 것입니다. 두드리시오, 여러분에게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 10,7-21

나는 어진 목자입니다. 어진 목자는 양들을 위
 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습니다.

필립 2,1-18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품어야 할 생
 각을 서로 품으시오.

성찰

1. 나는 내 삶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중심이 되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을 이루는 기둥으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2. 산상수훈(마태 5-7장)에는 예수님의 근본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과 가치관을 잘 배우고 이해하기 위하여 이 말씀을 조용하고 차근한 마음으로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사랑의 혁명

예수께서 영의 능력을 지니시고 갈릴래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에 관한 소문이 인근 온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분은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찬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당신이 자라난 나자렛으로 가셔서 당신 습관대로 안식일에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시었다. 이사야 예언자의 책이 당신에게 건네지자 그분은 그 책을 펴시고 이렇게 적혀 있는 대목을 찾아 (읽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과연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소경들에게는 눈뜰 것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을 풀어 보내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시려는 것이로다.”

그리고 책을 접어서 시종드는 사람에게 돌려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다. 회당에 모인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께로 쏠렸다. 그 때 예수께서는 그들을 향해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기 시작하였다(루가 4,14-21).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아픔

사랑하는 마음을 지녔기에 아픔을 겪어야 하는 이들의 속 이야기를 들을 때면 내 마음은 늘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위안으로 가득 차게 된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 담긴 이야기를 듣는 것은 그것 자체가 은혜로운 일이다. 나 자신이 예수회 사제로서 피정 같은 기회를 통해 영적 대화를 나누는 때가 많기에, 사랑하는 마음이 가져오는 내면의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들의 속사정을 듣게 되는 경우가 아주 많다. 그러한 마음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들만큼 강도 있게 나를 겸손하게 해 주고, 하느님께 감사드리며 사제로서의 소명에 더 충실하도록 촉구하는 내면의 소리를 듣는 순간들은 없다.

수도회를 마음 깊이 사랑하기에 수도회의 모순적인 현실 앞에서 마음 아파하며, 그 아픈 마음이 자신에게는 더 큰 회생과 투신을 요구하기에 겁먹은 마음으로 도망갈 궁리를 찾는 듯한 수도자의 갈등이 오히려 수도회에 대한 그의 사랑을 더욱 굳건히 자리잡게 해주는 갈등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현실 교회의 부조리한 실상 앞에서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아픔을 억누르며 자신의 신원을 끊임없이 의심하는 젊은 사제의 갈등은 분명히 진실에 대한 갈구와 자기 소명에 충실하고픈 소망이 자리잡기 위한 발버둥이다.

교회를 사랑한 이들은 교회 때문에 아파했고, 그들의 아픔을 통해서 교회 안에는 쇠신의 기운이 불어 왔다. 아니 그들

이 바로 교회였기에, 교회인 바로 그들의 아픔 안에서 쇠신의 기운이 이 세상에 불어오기 시작했다. 그래서 끌레르보의 성 베르나르도,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나, 로올라의 성 이냐시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등과 같이 교회의 쇠신을 위해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내어준 성인들의 삶을 묘사할 때 우리는 특별히 '교회의 사람' 혹은 '교회의 딸'이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한다.

사랑하는 마음은 쇠신을 부른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지극하신 사랑의 계시를 드러낸다: "과연 하느님께서서는 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시어 외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이마다 모두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이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요한 3,16-17).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에 지극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으며, 그 사랑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스도인들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사랑하신 마음으로 세상의 쇠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을 일컫는 말일 것이고, 교회란 세상에 쇠신을 가져오는 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공동체를 일컫는 말이다.

교회와 더불어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대한 질문은 분명히 세상에서 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교회를 사랑한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교회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라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 이야기 때문일런지는 몰라도, 역풍을 만나 시달리고 있는 배(마태 14,22-33; 마르 6,45-52; 요한 6,15-21; 마태 8,23-27; 마르 4,35-41; 루가 8,22-25) 등의 이미지를 통해서, 죄스러운 세상의 여러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묘사하는 묵상들을 가끔 접하게 된다. 때로는 겨자씨(마태 13,31-32)나 누룩(마태 13,33) 혹은 땅에 뿌려져 싹이 트고 자라야 하는 씨앗(마르 4,26-29; 요한 12,24) 등의 이미지들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이 묘사되기도 한다.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교회상과 사명관을 지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다.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투신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거기에는 분명히 특정한 사명과 자세가 요구된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바탕으로 그분이 바라보고 이해하시는 모습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사신 모습대로 세상에서 살아가겠다는 구체적인 투신을 뜻한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은 복음 선포에 대한 투신이다.

그리스도인의 소명과 자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향해 투신해야 할 것인가? 예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하신다: “가서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고 말하며 선포하시오. 병든 이들은 고쳐 주고 죽은 이들은 일으키며 나병환자들은 깨끗이 해주고 귀신들은 쫓아내시오”(마태 10.7-8).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가르침의 핵심을 이룬다. 당신의 일을 시작하시면서 주님께서 친히 “때가 차서 하느님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오”(마르 1.15) 하고 선포하셨다.

사실 하느님의 현존은 늘 우리를 감동시킨다. 아파하는 이

들의 마음 속에서 그 아픔을 유발하는 사랑을 발견하는 것은 나에겐 그들의 마음 속에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하는 순간이다. 우리 인간 모두는 각자 나름대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느님 나라'가 상징하는 그 무엇의 도래를 갈망하고 있다. 그것은 오직 희망이라는 언어로만 감지될 수 있는 것이기에 미래적 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미래에 완성될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와 있는 실체로서의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눈으로 우리 주변의 사건들을 바라보도록 촉구하셨다. 우리의 내면을 특징짓는 희망은 이제 미래로서가 아니라 현실적 실체로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고 있다.

하느님 나라의 현존은 우리의 눈을 새롭게 바꾸면서 삶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한다. 예수께서는 율법과 전통의 준수를 요구하지 않고 사고방식과 생활방식의 변화를 의미하는 회심을 요구하셨다. 우리는 우리의 사고방식과 삶의 양식을 바꾸어야 한다.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회심은 자신의 이기적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남을 위하고 가난하고 소외받는 이웃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영위하도록 이끌어 간다. 이것이 바로 치유이고 화해이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들과 더불어 살며 그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수고하고 일하는 것은 사랑과 평화와 화해를 위해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에 대한 봉사는 정의를 위해 수고하는 일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로 그러한 사명과 태도를 지녀야

한다. 하나님께 의존된 사람으로서 세상을 거스르는 존재로서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세상 안에서 진정한 사랑의 가치를 위해 투신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는 본질인 것이다.

응답하는 삶의 일상적 경험

“보시오, 나는 세상 종말까지 어느 날이나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마태 28.20)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적 삶 속에 늘 살아 있다. 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체험이 때로는 역풍을 만나 시달리는 배처럼 좌절과 절망에 의해 심하게 어지러움을 겪는 체험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현존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더욱더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을 불러일으켜 절망 안에서 품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상징이 가득 차는 체험으로 바뀌어 간다. 이 체험은 바로 회심의 체험으로서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소명을 담는 체험이기에, 비록 좌절의 체험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 그분의 부르심을 들은 이들은 곧 예수를 따라나설 수 있다.

나에게 있어서 루가복음의 마르타와 마리아의 이야기(10.38-42)처럼 응답하는 삶의 일상적 경험을 잘 묘사해 주는 장면은 없다. 이야기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예수의 일행이 여행하던 중 어떤 마을에 들르셨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셔들였다. 마르타와 마리

아는 라자로의 동생들로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는 마르타와 그 동기와 라자로를 사랑하고 계셨다”(요한 11.5)라고 묘사한다. 성서에서는 유난히도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이들과 오히려 가까운, 친분을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다.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들인 마르타와 마리아의 기쁨은 이를 데 없이 크다. 성서적 근거는 부족하지만 마르타는 동네에서 천대받던 여인이었고 나병 환자였던 라자로의 동생이었으며 죄녀의 상징인 마리아의 언니였다. 마르타는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신세인 자신의 집에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하신 예수께서 방문해 주신 데 대한 기쁨과 승리감으로 인해 예수님께 무조건 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을 지니게 된 것이다. 나아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로 그분을 모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독차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바뀌기도 한다. 그런데 이 마음이 짜증스런 마음으로 바뀌게 된 것이다.

분주하고 안절부절 못하는 마르타의 마음은 어쩌면 자신의 참모습을 감추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숨기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다. 또 예수님을 독차지하려는 마음은 타인이 예수님과 가까이 됨을 질투하게 만든다. 타인의 신앙 성숙에 대해 질투를 느끼고, 자신이 누리는 관계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결국 물귀신 근성이 드러나면서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의 파괴적인 태도를 지니게 된다. 하지만 마르타의 경우에는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예수님을 향해 토로할 수 있었다. 이것이 마르타의 응답이 보여 주는 위대함이다.

언니 앞에서 항상 조연이 되었어야 하는 마리아의 심정도

마찬가지이다. 언니의 그늘에 눌러 다양한 사회적 관계 안에서 자기의 개성 있는 모습보다는 늘 어쩔 수 없이 '누구 누구의 동생'으로서 간접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존재가 마리아의 처지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언니의 눈총을 무시하고 마리아 자신의 소신대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버렸다. 결국, 마리아가 부리는 오기는 약자의 오기이다. 예수님을 방패 삼아 타인에게 오기를 부리는 모습은 때로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의 형성을 방해할 수 있다.

우리가 알아들어야 할 뼈아픈 진리는, 세상의 여러 관계 안에는 물론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으며 별 불일 없는 엑스트라들도 있지만, 하느님과 나누는 관계에 있어서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연이라는 사실이다.

결국 우리 각자는 일상적 삶의 평범한 경험 안에서 자기에 게 고유한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간다. 우리가 성서에서 만나는 이들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이들이며 그분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한 이들이다. 그분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이들이다.

우리의 일상적 삶은 평범함 안에서 사랑과 좌절이 잔잔하게 진행되는 삶이다. 비록 잔잔하게 진행되기에 감지하기 어려운 사랑의 힘일지라도, 그 사랑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불려일으켜 변혁을 가져오며, 그 잔잔한 사랑의 혁명들이 교회 안에서 커다란 물결이 되어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삶의 잔잔한 좌절의 순간들에서 예수님을 응시할 수 있는 신앙의 지혜가 필요하다.

사랑하는 마음이 부르는 새신의 기운

사랑은 혁명을 부른다. 비워야 채워질 수 있기에 다 찬 사람은 채워질 수가 없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하나, 지금 현재의 생활을 전폭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사랑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혁명을 일으키며 신뢰를 요구하기에 우리로 하여금 하느님을 향해 전폭적으로 의존하는 태도를 요구한다.

하느님의 사랑은 우리를 부르신다. 사랑은 주고 받는 쌍방향 통행의 길이다.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응답하는 사랑을 요구하시고, 세상을 아끼시는 하느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세상을 향해 투신하도록 끊임없이 이끌어 가신다.

묵상 성구

- | | |
|-------------|--|
| 루가 4,14-30 |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과연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
| 마태 10,1-20 | 가서 하늘 나라가 다가왔다고 말하며 선포하시오. |
| 마태 14,22-33 | 힘내시오, 나요. 두려워하지 마시오. |
| 마르 10,46-52 | 그러자 즉시 그는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를 따라 길을 나섰다. |

2020년 11월 / 2020년 12월 15일

루가 10,38-42 그들이 여행하던 중 예수께서 어떤 마을에 들
르셨는데 마르타라는 여자가 그분을 모셔들었
다.

루가 6,17-38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시오.

생찰

1.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바라볼 때 나에게 아픔으로 다가
오는 부분은 어느 영역입니까? 이 영역의 쇄신을 위해 내가
구체적으로 투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하느님 나라의 현존은 도전적이어서 내 삶의 쇄신과 개혁을
요구하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을 향한 투신을 요구합니
다. 나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내 삶을 쇄신할 것이며,
가난하고 소외당한 이웃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투신할
것입니까?